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7월 FOMC: 허공을 가른 매(hawk)

- 美 기준금리 3.75%로 동결.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5회 연속 동결
- “느슨한 인플레이 목표는 없다” 그러나 이미 상승한 금리로 금융여건 긴축적
- 당장 9월보다는 낮은 기준금리 인상 예상.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압력 추가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모범답안을 제시한 삼성전자, 끊어지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

-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도 수급 변동성에 상승폭 반납
- FOMC 안도 뒤덮은 이란 재공습, 국제 유가-미국채 금리 재상승
- 반도체 부진 속 타 업종으로 저가매수 유입,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KOSPI 5,700 ~ 5,800 선 회복 안착 여부가 관건

- 반도체 악재가 투자심리 위축과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형성
- FOMC 안도감에도 부담을 가중시킨 중동 갈등 . 과도한 하락 국면으로 판단
- 핵심 분기점은 5,700~5,800 선 .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트리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8월 1주차] 美 6월 PCE + 美 2/4분기 GDP 조합, 증시 기술적 반등 견인 예상

- 美 증시, 고점에서 상승 빼기형 패턴 완성 후 23일 이후 방향성 하락 전환
- 30일 발표된 2가지 경제지표(美 6월 PCE, 2/4분기 GDP) 조합, 우선은 기술적 반등으로 의미 제한
- 미-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 타결이 뒤따라야 증시는 상승이라는 추세 전환 가능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천연가스를 누르는 엘니뇨, 그러나 내년은 다르다

- 천연가스 가격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슈퍼 엘니뇨, 내년 4월경 소멸 예상
-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와 달리 더딘 공급, 수급 측면에서 상승 조건 충족 중
- 유동성도 상승 방향 제시. 당장 어렵지만 내년 말까지 낙관적 견해 유지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Issue Comment] LGU+ : 자사주, 배당, AIDC

- 중간배당 270원(+20원 yoy) 결정. 26E DPS 700원(+40원 yoy)
- 자사주 900억원 결정(+100억원 yoy). 총주주환원을 53% 전망
- AIDC 추가 투자 결정. 26~28년 1.35조원. 30년 DC 매출 1.1조원 가능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2Q26 Review] 키움증권: 전 부문 실적 약진함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목표주가 31.5% 하향)

- 2분기 BK, WM, IB, Trading 전 부문 실적 개선되어 어닝 서프 달성
- 특히 주식 평가익, ETF LP수익 증가하여 운용손익 사상 최대
- 다만 업황 악화에 따라 목표주가 하향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LG 전자: 3Q 실적도 좋다! AI 향 공조, 로봇의 구체화

- 2Q26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으로 호조, 컨센서스 상회
- HS(가전), MS(TV)에서 믹스 효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피지컬AI 및 공조(HVAC), 로봇 사업 강화로 밸류에이션 확대 중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삼성전기: 3Q는 예상 상회, 최고! FC BGA/MLCC, 공급부족 심화

- 2Q26 영업이익은 4,404억원, 컨센서스를 8.4% 상회한 호실적
- 3Q/4Q 영업이익은 각각 6,130억원, 6,323억원으로 최고를 경신 추정
- FC BGA/MLCC, 고부가 중심으로 매출 확대, 본격적인 이익 상향 구간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삼성전자: 동의할 수 없는 주가

- AI 시대, 삼성의 성장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실적발표.
- 주가는 그간의 하락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
- 비중 축소의 근거는 요원. 목표주가와 매수익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2Q26 Review] 삼성 SDI: 예상보다 빨라진 흑전

- 2Q26 OP 일회성 요인으로 서프 기록했으나, 일회성 제외하더라도 흑자 달성
- 시장 조정/상장계열사 지분가치 하락으로 TP 하향했으나, Upside 여전히 93%
- 2H26 흑자 안정화, 북미 ESS/유럽 EV 수주 모멘텀 감안 시, 주가 매력 높음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7월 FOMC: 허공을 가른 매(hawk)

- 美 기준금리 3.75%로 동결.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5회 연속 동결
- “느슨한 인플레이 목표는 없다” 그러나 이미 상승한 금리로 금융여건 긴축적
- 당장 9월보다는 늦은 기준금리 인상 예상.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압력 추가

미 연준, 7월 기준금리 3.75%(상한 기준)로 동결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연준은 7월 28일~29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번 연속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1월부터 동결로 돌아선 바 있다.

이번 통화정책 결정은 해맥(클리블랜드),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로건(댈러스) 등 기준금리 25bp 인상을 주장하는 3인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반대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큰 그림은 긴축. 그러나 당장 인상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메시지

7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취임 이후 첫 회의에서 향후 정책 결정과 관련해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만큼이나 의장의 발언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워시 의장에 대한 관심은 최근 지표 여건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최근 집계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월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기준금리 변경 여부는 지표의 변화에 대한 워시를 비롯한 통화 당국자들의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워시 의장은 물가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적으로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 반면에 최근 높아진 시장금리로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란 발언을 통해 매파적 발언을 희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지표 여건이나 정책 결정권자들 간의 의견 조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금융여건이 이미 긴축적” 9월이 아닌 이후 인상 예상

예상됐던 기준금리 동결과 후술하겠으나 성명서 내용이 전월과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더욱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7월 통화정책 이벤트였다.

워시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는 “느슨한(soft)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면서 “느슨한 암묵적 목표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으며, 그것은 2%”라며 “FOMC 위원 가운데 이 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모범답안을 제시한 삼성전자, 끊어지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

-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도 수급 변동성에 상승폭 반납
- FOMC 안도 뒤덮은 이란 재공습, 국제 유가-미국채 금리 재상승
- 반도체 부진 속 타 업종으로 저가매수 유입, 업종별 차별화 장세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도 수급 변동성에 상승폭 반납

금일 삼성전자는 실적발표를 통해 HBM4 매출, LTA 계약, 주주환원, 파운드리 등 명확한 수치와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며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 장전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 Azure 성장률은 전년 대비 +43%, Microsoft Cloud 매출은 +27%를 기록했고, 4분기 CapEx도 410억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 대규모 투자에도 플러스 현금흐름을 이어가며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과 AI 투자 지속성을 재확인

다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급 변동성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증시는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재차 약세 전환. 거래대금 상위권에 레버리지 ETF가 여전히 다수 위치한 가운데, 31일 예정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레버리지 수급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

반도체: 삼성전자(-0.7%, 고가 +8.4%), SK하이닉스(-5.6%, 고가 +4.1%)

FOMC 안도 뒤덮은 이란 재공습, 국제 유가, 미국채 금리 재상승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 다만 3명의 위원이 25bp 인상을 주장하며 연준 내 매파적 기조를 확인

다만 워시 의장은 높은 수준의 미국채 금리가 긴축적인 금융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 이에 기준금리 인상의 절박성은 시장의 우려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CME FedWatch 기준 금리동결 확률은 9월 34.8%, 12월 14.1%로 상승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발언한 뒤, 5일 만에 이란을 재공습하며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 재차 상승. FOMC 이후 유입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재차 위험자산 회피심리를 강화

반도체 부진 속 저가매수 유입, 업종별 차별화 장세

반도체 업종 부진한 가운데, 일부 업종으로 저가매수세 유입. 업종별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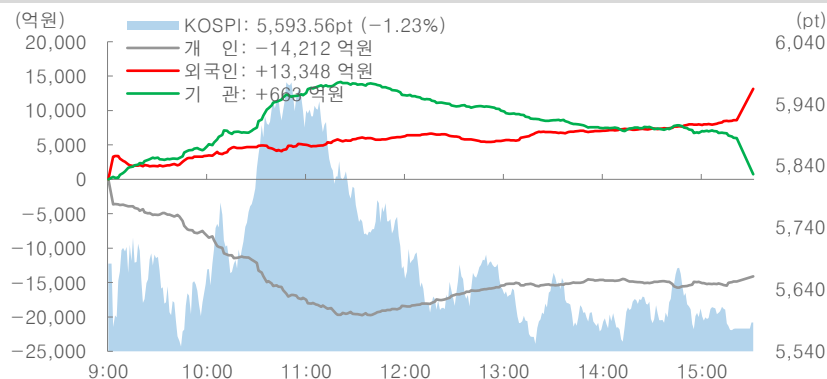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6.5%), 포스코퓨처엠(+6.6%), 에코프로머티(+3.0%)

조선: HD한국조선해양(+10.0%), 한화오션(+6.3%), 삼성중공업(+5.9%)

제약/바이오: 셀트리온(+5.6%), 유한양행(+5.3%), 삼성바이오로직스(+3.3%)

전력기기: LS ELECTRIC(-8.2%), 효성중공업(-5.6%), 대한전선(-6.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5,700 ~ 5,800선 회복/안착 여부가 관건

- 반도체 악재가 투자심리 위축과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형성
- FOMC 안도감에도 부담을 가중시킨 중동 갈등. 과도한 하락 국면으로 판단
- 핵심 분기점은 5,700~5,800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트리거

반도체 악재가 투자심리 위축과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형성

7월 KOSPI 급락의 배경에는 6월 고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반도체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작용이 자리. 반도체 관련 악재가 업종 급락을 넘어 KOSPI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매도 압력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현재 KOSPI는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에서 언급된 자기강화 현상이 지배. 지수 하락을 설명할 악재가 발굴되고, 해당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형성. 다만 악재를 살펴보면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었다고 판단. 메타는 AI 클라우드 사업보다 AI 모델, 알고리즘 고도화를 우선하겠다고 설명했고, 27년에도 CapEx 확대를 밝히며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

CXMT의 생산능력 확대 우려도 메모리 병목을 단기간에 해소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중국의 Immersion DUV 장비 또한 ASML의 기술적 우위를 뒤집기 어렵고, 시장점유율도 제한적. 중국 내 메모리 양산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

FOMC 안도감에도 부담을 가중시킨 중동 갈등. 과도한 하락 국면으로 판단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 3명의 위원이 25bp 인상 의견을 제시. 예상에 부합한 결과에도, 세 명의 인상 의견이 확인되며 시장은 매파적으로 해석. 다만 워시 의장이 높은 수준의 미국채 금리가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한다고 평가한 만큼, 실제 금리 인상의 절박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지속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국제 유가와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자극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이어지며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

결과적으로 KOSPI는 밸류에이션, 기술적 측면에서 과도한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최근까지 선행 EPS, 26년, 27년 이익 전망 상황 조정 중이고, 경기선행 지수 또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4.74배에 불과.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 현재 KOSPI는 악재성 이슈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 공포심리와 수급 악화, 디레버리징 매도가 진행 중인 최악의 국면을 통과 중.

핵심 분기점은 5,700~5,800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트리거

핵심 분기점은 5,700~5,800선. 200일 이동평균선과 2025년 4월 저점에서 2026년 6월 고점까지 상승 폭의 50% 되돌림 구간, 12개월 선행 PER 5배와 선행 PBR 1.2배(26년 평균의 -2표준편차 & 25년 이후 평균) 수준이 해당 지수대에 집중.

7월 30일까지 KOSPI가 해당 지수대를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5,000선의 지지력을 시험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KOSPI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7월말 급락 국면은 Fake, 속임형 패턴으로 빠르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1차적으로 선행 PER 7배 수준인 8,200선, 이후에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 충분.

향후 반등의 핵심 변수는 7월 말~8월 초 예정된 빅테크의 실적 발표, CapEx 확대 기조가 재확인되고 AI 투자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

이번 FOMC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될 여지는 확인된 상황.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협상 및 평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가, 채권금리의 순차적인 안정이 가시화되며 투자 부담도 완화될 것.

그 동안 KOSPI 급락의 트리거였던 AI, 반도체 업황/실적 우려와 유가, 물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반등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美 6월 PCE + 美 2/4분기 GDP 조합, 증시 기술적 반등 견인 예상

- 美 증시, 고점에서 상승 빼기형 패턴 완성 후 23일 이후 방향성 하락 전환
- 30일 발표된 2가지 경제지표 조합, 우선은 기술적 반등으로 의미 제한
- 마-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 타결이 뒤따라야 증시는 추세 전환 가능

美 6월 PCE 결과, 3개월 만에 (+) 실질정책금리 전환. 현 미국 증시 상황 고려 시, 우선 기술적 반등 견인

30일 발표된 미국의 6월 PCE 결과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전년동월대비(이하) 3.7% 상승해, 2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던 올해 5월 상승률(4.1%)보다 0.4%p 낮아졌다. 근원 PCE도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해, 시장 예상치 부합과 전월(3.4%)보다 둔화됐다. 6월 PCE 오름폭 둔화의 배경은 이란 전쟁 휴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항목별로는 상품 가격은 전월대비(이하) 0.6%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1% 상승했다. 재화부문은 자동차 및 부품 등 내구재 가격은 전월과 같았지만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9.2% 급락하면서 비내구재 물가는 1.0% 하락했다. 서비스부문은 운송서비스, 보건 의료, 금융 보험 가격이 전월보다 각각 0.6%, 0.3%, 0.2% 오른 반면, 오락서비스와 외식 숙박 가격은 각각 0.1% 하락했다.

이번 6월 PCE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통화긴축 여부 및 증시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정책금리(정책금리-물가, 0.5%)가 3개월 만에 (+)로 전환함에 따라 증시 방향성 역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다만, 현 미국 증시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우선은 기술적 반등으로 의미를 좀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

美 2/4분기 GDP 속보치 부진, 금융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기대 낮출 것

30일 발표된 美 2/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연율(이하)로 1.5% 증가해, 1/4분기 성장률 2.1%보다 둔화됐다. SPR(전략적유비축유) 매각 등 비국방 지출 중심의 연방정부 지출 감소세와 투자와 수출의 증가폭이 낮아진데 기인한다. 투자 부문에서 민간 재고 투자(도매업)와 비거주용 구조물(제조업) 투자 감소, 수출은 여행 및 기타 사업 서비스 감소가 석유 및 관련 제품 수출 증가세를 상쇄했다. 성장을 부진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을 낮출 것이며, 7월 FOMC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27년 3월로 늦춰진 상황이다(CME 패드워치 틀).

美 증시, 고점에서 상승 빼기형 패턴 완성 후 23일 이후 방향성 하락 전환. 2가지 경제지표 조합, 우선은 기술적 반등으로 의미 제한. 마-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 타결이 뒤따라야 증시는 추세 전환 가능

미국 증시는 7.23일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이후, 고점에서 상승 빼기형 패턴 완성과 함께 증시 방향성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6월 PCE와 2/4분기 GDP 결과 조합은 (+)실질정책금리 전환과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낮추며, 우선 기술적 반등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 종전 합의가 뒤따라야 증시는 상승 전환이라는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가지 경제지표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반등으로 축소해석해야 한다.

천연가스를 누르는 엘니뇨, 그러나 내년은 다르다

- 천연가스 가격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슈퍼 엘니뇨, 내년 4 월경 소멸 예상
-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와 달리 더딘 공급, 수급 측면에서 상승 조건 충족
- 유동성도 상승 방향 제시. 당장 어렵지만 내년 말까지 낙관적 견해 유지

천연가스 가격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슈퍼 엘니뇨, 내년 4 월 이후 소멸 예상

미국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헨리허브는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 4월부터 슈퍼 엘니뇨가 출현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 탓이다. 엘니뇨는 적도를 기준으로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무역풍의 이동 속도가 둔화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강화된 아열대 제트기류가 극제트기류의 남하를 저지하게 되는데 엘니뇨 시 겨울철 북반구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의 월별 천연가스 재고 증감 추이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름철 냉방보다 겨울철 난방향 수요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

물론 슈퍼 엘니뇨발 영향은 한시적일 뿐이다. CCSR/IRI 측의 ENSO 예측 모델상으로는 올해 10월~내년 1월경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가 정점에 도달한 후 진정될 것이라 나타났다.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슈퍼 엘니뇨가 후퇴할 것을 암시한다. 지난 자료 <슈퍼 엘니뇨가 지연시킨 천연가스 가격 상승 시점(6/5)>에서 전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 가격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요와 달리 더딘 공급, 수급 측면에서 상승 조건 충족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천연가스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시기는 2027년이 유력하다. 수급 측면에서 가격 상승을 위한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 1)AI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력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이를 위한 공급은 준비가 더디기만 하다.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포퓰리즘 탓에 유전 개발을 7년째 미루고 있다. 원유/천연가스(수반 가스) 공급이 이들의 CapEx 투자를 7년 가량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7~2028년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3)그간 미군이 사수했던 호르무즈 해협마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보험사들의 리스크 부담 ↑). 흔들리는 공급망 안보, 카타르산 LNG까지 유통되기 어렵다면 천연가스 수급은 한층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도 상승 방향 제시. 당장 어렵지만 내년 말까지 낙관적으로 접근 필요

4)유동성 Proxy인 금 역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은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팽창(정책금리 인하, QE 등 부양책 따른 화폐 가치 절하)될 때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Safe-Haven)해주는 헷지 자산이다.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에 지난 1월 경기 선행 자산인 주식(예: 반도체 업종)보다 먼저 유동성을 반영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말인즉, 후행 자산인 에너지(원유 + 천연가스) 지수는 내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장은 기상이변 이슈로 어렵겠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전 세계 에너지원의 76%인 화석 연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낙관적 의견을 유지한다.

LG유플러스 (03264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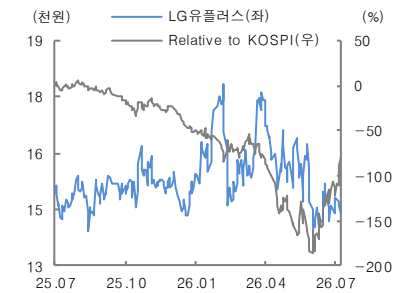
14,410

(26.07.29)

통신서비스업중

KOSPI	5663.24
시가총액	6,11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9%
자본금(보통주)	2,5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810원 / 13,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6억원
외국인지분율	41.82%
주요주주	LG 외 3 인 38.75% 국민연금공단 7.4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	-10.2	-10.7	1.2
상대수익률	46.6	6.1	-17.6	-42.3



자사주, 배당, AIDC

- 중간배당 270원(+20원 yoy) 결정. 26E DPS 700원(+40원 yoy)
- 자사주 900억원 결정(+100억원 yoy). 총주주환원을 53% 전망
- AIDC 추가 투자 결정, 26~28년 1.35조원. 30년 DC 매출 1.1조원 가능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0,000원 유지

26E EPS 1,609원에 PER 13배 적용. 최근 5년 통신업(KT, LGU+ 기준) 평균 10 배 대비 30% 할증 적용

예상했던 수준의 자사주 취득/소각 결정

주주환원 정책: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 및 0~20% 자사주 최소 배당은 DPS 650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당

중간 배당 270원(+20원 yoy) 결의. 기준일 8/13, 지급일 8/28
당사 추정 26E DPS 700원(+40원 yoy), 배당금 2.9천억원, 수익률 4.9% 전망

자사주 취득/소각 25년 800억원(5/15 소각), 26년 900억원(+13% yoy) 결의
기간은 26.8~27.2월

총주주환원 25년 3.6천억원, 26E 3.8천억원, 총주주환원 수익률 6.3% 전망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주주환원을 목표는 40~60%, 총주주환원을 24년 59%, 25년 67%(일회성 제외시 약 53% 수준), 26E 53%, 27E 53%

총주주환원을 목표 상단인 60%까지 업사이드가 있지만, AIDC 투자를 위해 전년과 유사한 환원율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

차근차근 쌓아가는 AIDC

동사의 DC 운용 용량은 165MW, 30년 목표는 400MW, 증설 235MW
증설 중 자체 AIDC는 130MW. 파주 AIDC 1~4동. 각 동별 약 32MW 규모

파주 AIDC 1동: 약 32MW. 25.5~27.5월. 투자비 6.2천억원

파주 AIDC 2~3동: 약 65MW. 26.8~28.11월. 투자비 1.35조원

동사의 25년 DC 매출은 4.2천억원(+18% yoy). 향후 구축되는 AIDC는 GPU Colocation 등 기존 DC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비즈니스여서, 30년 동사의 DC 매출은 1.1조원 수준까지 확대 가능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625	15,452	15,732	16,057	16,355
영업이익	863	892	1,172	1,277	1,385
세전순이익	451	680	895	1,017	1,143
총당기순이익	315	509	680	773	868
자배지분순이익	374	524	686	781	877
EPS	858	1,208	1,609	1,853	2,111
PER	12.0	12.2	9.4	8.2	7.2
BPS	19,596	20,438	21,258	22,177	23,305
PBR	0.5	0.7	0.7	0.6	0.6
ROE	4.4	6.0	7.7	8.5	9.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LG유플러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키움증권 (03949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70,000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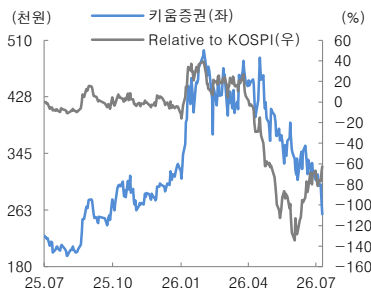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7.29)

256,500

증권업종

KOSPI	5,663.24
시가총액	6,72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1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95,500원 / 195,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13억원
외국인지분율	28.16%
주요주주	다우기술 외 5인 42.49% 국민연금공단 11.6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5	-39.4	-39.8	19.0
상대수익률	14.9	-28.4	-44.5	-32.1



전 부문 실적 약진함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 2분기 BK, WM, IB, Trading 전 부문 실적 개선되어 어닝 서프 달성
- 특히 주식 평가익, ETF LP수익 증가하여 운용손익 사상 최대
- 다만 업황 악화에 따라 목표주가 하향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나 목표주가 370,000원으로 하향

전 부문 수익성 개선되며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특히 주식운용 부문 평가손익과 ETF LP 관련 손익이 크게 증가하여 운용손익이 당사 추정을 크게 상회하였음. 향상된 실적으로 '26년 DPS 18,000원 예상

그러나 3분기들어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대금 증가를 견인했던 ETF 규제가 강화되어 하반기 실적 감소가 불가피. 이는 동사만의 이슈는 아니며 증권사 전반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따라서 우리는 목표주가를 370,000원으로 하향하며, 목표주가 하향은 전술한 요인에 따라 타겟 PBR을 하향한 것에 기인

2Q26 연결 순이익 6,801억원(QoQ +42.8%, YoY +120%)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실적호조는 ETF LP 수익 및 P본부 평가이익 급증함에 따라 전체 운용손익 증가에 기인

BK수수료수익 5,726억원(QoQ +36%, YoY +147%) 달성. 미국 주식 거래약정이 다시 증가하였고, 마케팅 종료되어 Q와 P 모두 개선, 해외주식수수료수익 1,355억원(1분기 804억원) 반영되어 관련 수익 크게 증가. 국내주식 리테일 점유율은 25%로 1분기에 이어 지속적 하락세. 퇴직연금 출시, 자본시장 호조로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499억원(QoQ +62.3%, YoY +93.6%) 기록하여 최고 실적 경신하였으며 IB수익도 구조화/PF 부문 수수료 증가하며 상당히 약진하였음. 당 분기 실적 서프의 주역은 상품운용수익으로 4,044억원(QoQ +36.5%, YoY +129%) 달성하였는데,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이 급증하였고, 최근 ETF 거래규모 급증함에 따라 ETF LP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 평가익 50%, ETF관련 20%, 채권 관련 5% 이익 기여로 사측은 설명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였음(3,449억원(QoQ +40%, YoY +67%)). 최근 ETF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LP손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과세처리는 손익 상계되지 않아 수익으로만 적용되고, 교육세율까지 인상되어 관련 비용 600억원 가량 반영된 것으로 추정. 새로운 밸류업 계획 발표하였는데, 환원율 30% 이상 유지, 2028년까지 감액배당 추진할 예정. 주지하다시피 동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인데, 향후 이익 증가로 배당총액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분리과세 유지할 예정이고, 이익감소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총 의결하여 감액배당 추진할 계획

구분	20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Q26P			3Q26E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순이익	310	476	508	680	119.6%	42.8%	511	415	28.9%	-39.0%

자료: 키움증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4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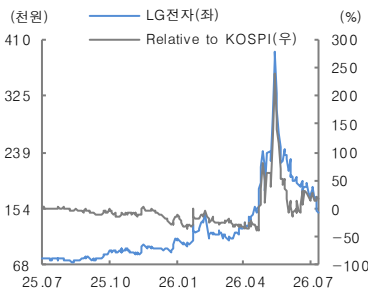
(26.07.30)

148,0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593.56
시가총액	25,02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8%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92,500원 / 72,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362억원
외국인지분율	29.07%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추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1	5.0	49.3	88.1
상대수익률	10.5	23.9	39.5	9.4



3Q 실적도 좋다! AI향 공조, 로봇의 구체화!

- 2Q26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으로 호조, 컨센서스 상회
- HS(가전), MS(TV)에서 믹스 효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피지컬AI 및 공조(HVAC), 로봇 사업 강화로 밸류에이션 확대 중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40,000원 유지

연결, 2026년 2Q 매출은 23,83조원(14.9% yoy/0.4% qoq)과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5.7% qoq)으로 호조, 영업이익은 일회성 이익(관세환급 등)을 제외하더라도 HS(가전)과 MS(TV 등), VS(전장)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추정을 상회. MS 부문의 영업이익은 2025년 연간으로 -7,509억원 기록 이후에 2026년 1Q에 3,178억원으로 흑자전환(qoq), 2Q도 2,194억원 기록. VS(전장)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6.3%로 고부가 중심의 수주 확보가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연결. 별도의 영업이익은 1,33조원(113% qoq/-3.5%)으로 컨센서스를 상회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24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65배(성장기 상단)) 유지. 2026년 3Q 영업이익은 1.1조원으로 종전 추정을 상향. HS 및 VS 부문의 매출 증가, 믹스효과에 기인. 2026년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및 로봇 사업의 구체화된 전략, 매출이 가시화 예상. B2B 및 HVAC 등 신성장 사업에서 수주도 확대. 투자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 수익성 확대 / AI 데이터센터향 냉각솔루션 수주 증가

2026년 3Q/4Q 영업이익은 각각 1.1조원(+61.5% yoy), 5,290억원(흑전 yoy) / 별도(LG전자만의) 영업이익도 각각 7,827억원(64% yoy), 1,638억원(흑전 yoy)으로 추정. HS에서 글로벌 매출 증가가 예상을 상회, 구독가전의 효과가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을 견인. 또한 VS도 기존에서 수익성 중심의 수주가 매출로 연결, 컨센서스 상회한 수익성 예상. 2026년 영업이익은 97.5%(yoy) 증가한 4.9조원 추정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관련한 수주가 2026년 상반기에 6천억원 확보, 또한 하반기에 회사가 제시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진행되면 2027년 ES 부문의 수익성 확대가 예상. 밸류에이션의 상향 근거로 작용. 또한 로봇 사업의 한 축인 액추에이터의 파일럿 생산 라인 구축 이후에 양산화 준비, 2027년 액추에이터 매출 확대 및 그룹간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

2Q26 영업이익은 1.58조원으로 147%(yoy) 증가 : HS, MS가 견인

2026년 2Q, 연결 매출은 23.83조원으로 14.9%(yoy/0.4% qoq), 영업이익은 1.58조원으로 147%(yoy/-5.7% yoy) 증가 기록. HS(가전) 매출(7.08조원)은 7.2%(yoy/1.9% yoy). MS(TV 등) 매출(5.1조원)은 16.4%(yoy/-1.1% qoq) 증가, VS(전장) 매출(3.03조원)은 6.2%(yoy/-1.3% qoq) 증가, ES 매출(2.73조원)은 3.1%(yoy/-3.4% qoq) 증가

삼성전기 (00915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8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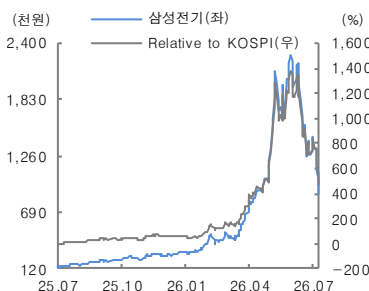
879,000

(26.07.3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593.56
시가총액	66,58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0%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70,000원 / 143,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665억원
외국인지분율	39.45%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 인 23.77% 국민연금공단 9.9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9.8	5.6	215.1	478.7
상대수익률	-39.0	24.6	194.3	236.7



3Q는 예상 상회, 최고! FC BGA/MLCC, 공급부족 심화

- 2Q26 영업이익은 4,404억원, 컨센서스를 8.4% 상회한 호실적
- 3Q/4Q 영업이익은 각각 6,130억원, 6,323억원으로 최고를 경신 추정
- FC BGA/MLCC, 고부가 중심으로 매출 확대, 본격적인 이익 상황 구간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800,000원 유지

2026년 2Q 영업이익은 4,404억원으로 추정(4,240억원), 컨센서스(4,061억원)대비 각각 3.8%, 8.4%씩 상회. 분기 기준, 2021년 3Q(4,458억원) 이후에 최고, 동기에 매출은 3.46조원으로 24.2%(yoy/7.7% qoq)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107% yoy/57% qoq)이 매출 증가(24% yoy)대비 더 높은 시기, 믹스 효과가 시작

영업이익은 2026년 3Q(6,131억원), 4Q(6,323억원)에 확대, 최고를 경신 예상.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115.3%(yoy) 증가한 1.97조원, 2027년 64.4%(yoy) 증가한 3.23조원, 2028년 22%(yoy) 증가한 3.94조원으로 고성장 추정.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각각 8.7%, 21.5%씩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2,800,000원(2027년~2028년 주당순이익(EPS)의 평균 상단, 밸류에이션 재평가 및 할증 반영) 유지. 최근 주가 하락이 과대하였으나 실적 상황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완화 시기로 분석

FC BGA, MLCC : 고부가 비중 확대로 믹스 효과가 극대화, 이익 상향

서버용 FC BGA, 전장용 등 고부가 중심의 MLCC 수요가 동시에 예상을 상회. 특히 공급부족의 상황이 심화, 단기/중단기 공급 계약 비중 확대 중. 빅테크 및 하이퍼스케일러가 집중된 AI용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에서 중요한 부품인 FC BGA, MLCC는 일본 경쟁업체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 고부가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

MLCC는 서버용 수요 강세 속에 공급의 한계(일본 무라타와 삼성전기만 공급 가능)로 수주 증가, 고부가 중심의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예상을 상회, 최근 7,491억원 수주도 단기 보다 장기 계약의 체결 증가를 의미. 2027년 실리콘 캐패시터의 매출 반영은 밸류에이션 확대로 작용. 실리콘 캐패시터는 AI 및 데이터센터용 필요한 차세대 부품으로 성장 중. 일본 및 삼성전기의 MLCC 가동률은 95% 후반대 예상, 추가적으로 연간 주당순이익(EPS) 상향의 가능성은 상존

2Q26 매출은 최고 경신, 영업이익은 3Q21 이후에 최대

2026년 2Q, 매출(3.46조원)과 영업이익(4,404억원)은 각각 24.2%(yoy/7.7% qoq), 106.7%(yoy/57% qoq) 증가. 컴포넌트(MLCC 등) 사업의 매출(1.65조원)은 29%(yoy/17% qoq) 증가. AI 서버 네트워크, 파워 등 데이터센터용 매출 확대. 패키징솔루션 사업의 매출(7,716억원)은 37%(yoy/6% qoq) 증가. 광학솔루션 사업의 매출(1.04조원)은 10%(yoy/-4% qoq) 증가

삼성전자 (005930)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6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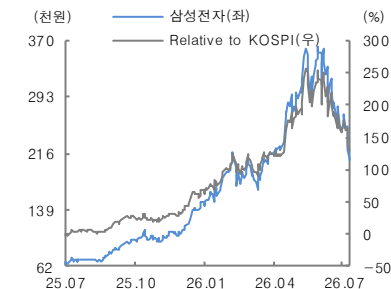
207,000

(26.07.30)

반도체업종

KOSPI	5593.56
시가총액	1,331,33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0.02%
자본금(보통주)	76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62,500원 / 67,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6,593억원
외국인지분율	46.51%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69% 국민연금공단 7.8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8.0	-6.1	29.0	185.1
상대수익률	-6.1	10.7	20.5	65.9



동의할 수 없는 주가

- AI 시대, 삼성의 성장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실적발표.
- 주가는 그간의 하락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
- 비중 축소의 근거는 요원.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줄일 때가 아니라 늘릴 때다

AI 시대, 삼성전자의 성장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준 실적발표. 그럼에도, 당일 주가는 부진. 다만, 이는 사이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하락.

1) 장기계약과 효율적 가격 전략에 기반한 메모리반도체에서의 강력한 이익 창출, 2) Upcycle에서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DS 사업부문의 가치, 3) 업계 최대 체급에 기반한 풍부한 현금흐름이 가져올 강력한 주주환원 (역대 최대 규모)이 주가의 빠른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는 판단.

성과급 지급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도 안 한 만큼 우호적 주식 수급의 변화 또한 기대 가능. 비중 축소의 근거는 요원.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1. 메모리반도체: 전략적 성공과 이익 레버리지

금번 Upcycle에서 삼성전자는 전략적 가격 인상을 단행. 물량과 원가에서 과거와 같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전략적 가격 인상에 기반한 수익성 극대화 정책을 그간 적극 추진. 2분기의 경우, 대규모 성과급 총당금 (17조원 내외로 추정) 인식 속에서도,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는데 성공 (영업이익률: DRAM +78%, NAND +70%).

다음 목표는 장기계약에 기반한 사업 효율성 제고, Rolling Base(계약 사전 연장 옵션), Prepayment (전체 계약의 20~30% 수준) 등 구속력과 지속력을 겸비한 계약의 체결을 적극 추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핵심 고객들 중심으로 계약 체결을 확대 중 (근시일내 10여 개 고객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며, 장기계약 비중을 전체 Capa의 60~70%까지 확대할 계획. 선단공정 수율 추가 개선에 따른 Cost 절감 여력, 업계 평균을 상회할 HBM 가격 상승률 등에 기반한 이익 레버리지 또한 추가 기대 가능한 환경.

2. 로직/파운드리: Upcycle에서 두드러지는 시너지

최근 Broadcom과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업을 발표. HBM Base Die, Controller 등에 기반한 선단공정 가동률 조기 회복 효과에 더하여, 최선단공정 (2nm) 공정 수주가 활성화 (CPU, ASIC, 통신 칩 등). 신규 수주 확보에 있어, “극단적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과 “2nm 공정 조기 안정화 효과” 등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 이에, 파운드리 사업부문 한정으로 보면, 3Q26~4Q26 구간 내 흑자전환 조기 달성 가시성이 증가.

3. 세트: 비용 통제의 강화와 전략적 사업 육성

기존 사업의 경우, 비용 통제와 점유율 확보 중심의 사업 전략이 시행될 것. 로봇 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갈 것.

4. 주주환원: 명확한 방향성의 재확인

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결실을 맺을 시점. 자사주 매입/소각과 특별배당을 혼용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되며, 예년 대비 빠른 시점에 발표될 가능성 유효.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의 시행 속, 주가의 낙폭 또한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

삼성SDI (006400)

김귀연
박서영 RA

gwiyeon.kim@daishin.com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9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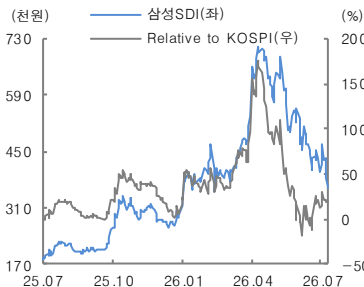
358,500

(26.07.30)

2차전지/IT에너지 및 부품업종

KOSPI	5593.56
시가총액	29,14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4%
자본금(보통주)	40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12,000원 / 190,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843억원
외국인지분율	26.34%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5 인 20.31% 국민연금공단 7.9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6.4	-48.4	-8.1	74.0
상대수익률	11.6	-39.1	-14.1	1.3



예상보다 빨라진 흑전

- 2Q26 OP 일회성 요인으로 서프 기록했으나, 일회성 제외하더라도 흑자 달성
- 시장 조정/상장계열사 지분가치 하락으로 TP 하향했으나, Upside 여전히 93%
- 2H26 흑자 안정화, 북미 ESS/유럽 EV 수주 모멘텀 감안 시, 주가 매력 높음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90,000원 하향(-25%)

삼성SDI TP 69만원(기업가치 55조원)은 영업가치 63조원(대형전지 48조원, 소형 전지 13조원, 전자재료 1.3조원), 비영업가치 1.7조원(SDC 8,480억), 순차입금 9.3조원 반영. TP 하향은 1) 시장 조정에 따른 타겟 밸류 조정, 2) 상장계열사의 가치하락에 기인. 5월 이후 주가 낙폭 확대됐으나,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 북미 ESS 매출 성장 및 고부가제품(UPS, BBU 등) 믹스 개선으로 흑자전환 시점 앞당겨진 점(3Q → 2Q) 긍정적

1) 북미 ESS 매출 확대에 따른 증익 사이클 재개, 2) non-PFE 기준 충족하는 LFP 배터리 공급, 3) ESS 제품 믹스 효과 가시화. 2H26 북미 ESS향 LFP 배터리 및 유럽EV 신규 프로젝트 수주 가시성 높음. 2H26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주가 상승 예상. 업종 Top Picks 유지

2Q26 매출 3.8조원(YoY +19%, 이하 YoY), OP 2,038억원(흑전), OPM 5.4% 시현

미국 관세 환급 일회성으로 2Q26 OP 컨센(-26억, 1M 기준) 상회하는 서프 기록. 일회성 제외하더라도 소폭의 흑자 시현. [배터리] 매출 3.5조(+19%), EV 1.5조(비중 43%)/ESS 8,094억원(23%)/소형 1.2조원(34%). OP 1.6조원 달성. ESS 국내 매출 일부 이연에도 1) 관세 환급 일회성, 2) 미국 JV 생산 증가, 3) ESS/소형 믹스 개선으로 흑전. [전자재료] 매출 2,498억(+15%), OP 445억(+35%), OPM 18%. 반도체/IT 견조한 수요 효과 지속

3Q26 매출 4.0조원(QoQ +5%), OP 888억원(QoQ -56%), OPM 2% 전망

QoQ 일회성 이익은 소멸될 것이나, ESS 매출 및 AMPC 보조금 효과 본격화되며 흑자 구조 안정 예상. 스텔란티스 물량 축소로 자동차 매출 QoQ -11% 하락하는 반면, 북미 중심 ESS 매출 +25% 증가하며 AMPC 보조금 1,217억 반영 예상. AMPC 제외 시, 자동차 제외한 전 사업부의 흑자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매출액	3,179	3,576	3,666	3,769	18.5	5.4	3,666	3,953
영업이익	-398	-156	-58	204	흑전	흑전	-27	89
순이익	-153	-28	14	342	흑전	흑전	61	188

자료: 삼성SDI, FnGuide,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6,592	13,267	15,902	20,429	24,420
영업이익	363	-1,722	381	1,660	3,115
세전순이익	527	-1,364	1,191	2,409	3,860
총당기순이익	576	-585	1,096	1,843	2,953
자배지분순이익	599	-649	767	1,659	2,658
EPS	8,288	-8,325	9,333	20,176	32,332
PER	29.2	NA	69.9	32.3	20.2
BPS	273,371	274,873	270,512	291,018	323,685
PBR	0.9	1.0	1.3	1.2	1.1
ROE	3.1	-3.2	3.5	7.2	10.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자료: 삼성SDI,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